

동서발전(주), 최고의 기술력으로 승부한다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 'EWP Technical Road Map' 수립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사장 이용오)가 미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발전기술 개발 계획 'EWP Technical Road Map' 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갔다.

'EWP Technical Road Map' 은 향후 10년 뒤 동서발전이 발전 기술 분야에 있어 선두주자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하는 중장기 발전기술 개발 계획으로 회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핵심기술인 신 에너지, 신뢰도 향상, 발전제어, 환경경영, 건설기술, 전력경제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발전부문이 분리되면서 기존 한전이 체계적으로 주도해오던 국내 전력산업 기술개발 성향이 발전사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성 용역 위주 연구개발 바뀌었다"며, "각 발전사들 역시 경영수지 제고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연구개발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EWP Technical Road Map' 은 발전기술 역량제고를 통한 경영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를 시작으로 2013년까지 연간 매출액의 0.4%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투자를 추진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동서발전은 현재 보유한 기술자원과 경영여건을 고려한 기술역량분석 등 사내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회사의 미래성장 동력이 될 핵심기술 34개와 137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함으로써 알려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한 신 에너지 분야를 포함, 발전설비를 종합적으로 진단,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제어설비 국산화를 위한 발전제어 분야 등 모두가 발전사업의 미래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핵심기술"이라며, "나날이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기술 및 고효율의 차세대 발전소 건설과

최적 운전 계획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서발전은 이를 위해 전력연구원, 에너지경제 연구소 등 국내 유수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이어나간다는 목표로, 연구개발 결과를 철저히 관리해 보다 내실있는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동서발전은 회사의 전원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신재생 에너지와 발전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미래기술 선점을 통한 기술경쟁력 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주), 서울화력제4호기 500일 장기무고장운전(LTTF) 달성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 제4호기가 11월17일로 500일 장기무고장운전(00.2.15~ 04.11.17:약5년) 을 달성하였다.

서울화력 제4호기 500일 장기무고장운전 달성은 약 5년에 달한 장기간 전직원이 평소 빈틈없는 설비운영과 정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고장방지 예방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서 수도권 지역의 전력공급과 동절기 열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였다.

특히 제4호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설비로 많은 고장발생 요인이 상존하고, 잦은 기동정지와 중앙제어실 통합공사로 인한 운전환경 변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직원이 특별점검과 비상 운전 대처능력배양 등의 활동으로 무고장운전을 달성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하겠다.

이날 김영철 사장은 축전을 통하여 "서울화력 전직원과 협력업체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치하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설비운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서부발전(주), 청라지구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선정

한국서부발전을 포함한 롯데건설, 인천도시가스 컨소시엄은 지난 11월 5일 산업자원부로부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 지구에 냉·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서부발전은 지난 8월 산업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대구도시가스 컨소시엄과 치열한 경쟁 끝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서인천 복합화력의 저압터빈과 중압터빈 입구 증기 활용과 보일러내 폐열회수장치(District Heating Economizer)를 설치하여 2008년부터 청라지구에 열을 공급하게 된다.

서부발전은 청라지구 집단에너지사업권 확보로 전기사업뿐 아니라, 열공급사업을 통해 종합 에너지 회사로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로 인해 열 판매, 부지임대 등 신규수익 창출과 고용증대 및 조직 활성화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직장 구현과 21세기 발전사업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발전 전용인 서인천 복합화력은 청라지구 열수요에 따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고효율의 열병합 발전소로 개조되어 발전소 이용을 향상이 기대되며, 국가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주), 울진 6호기 운영허가 취득

국내 20번째 원전, 출력 및 성능시험 위해 원전연료 장전

한국수력원자력은 11월 12일 국내 20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울진 6호기에 최초로 원전연료를 장전하였다.

울진 6호기는 지난 1999년 1월 착공, 2000년 9월 콘크리트 타설을 시작 으로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설치 등 4년여 동안의 건설공사, 상온수압시험 및 고온기능시험 등의 시운전 시험을 거쳤다. 그동안 과학기술부와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검토

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5개 전문분과의 심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안전성을 확인하였고 제 28차 원자력 안전위원회(위원장: 오명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의 의결에 따라 금일 운영허가를 취득,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2일 준공된 울진 5호기와 동시에 건설을 시작한 울진 6호기는 100만k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으로 앞으로 출력상승 시험과 성능보증시험 등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시운전 시험을 거쳐 내년 6월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어 고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외화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 6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종합사업관리와 시운전 및 시공관리, 한국전력기술이 발전소 종합설계와 계통설계,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 및 터빈발전기 제작, 한전원전연료가 연료를 제작하였으며 동아건설,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3사가 공동으로 시공하였고 한전기공이 연료장전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두산중, 외부 수탁교육 사업 확대

올해 11개 과정 실시, 2억원 수익 기대

두산중공업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탁교육을 실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합천 연수원 등 자체 사원교육시설을 활용, 올해 들어 11개 과정의 외부 수탁교육을 실시해 연말까지 약 2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고 11월 3일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002년부터 한전이나 협력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기술전문 수탁교육을 해오다 올해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해 수탁교육을 확대해왔다.

특히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경남지역 공무원 120여명을 대상으로 '창의력' 과 'NGO', '행사기획' 등 일반 교육과정을 실시한 결과, 교육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수익증대는 물론, 기업 이미지도 제고 효과도 보고 있다.

이번 공무원 수탁교육에 참가한 경남도청 공무원은 “매년 2~3회 수탁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번 두산중공업 교육은 민간기업에서 주관한 만큼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무에서 터득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접해볼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김종세 부사장(지원부부장)은 “회사의 세계적 플랜트 기술과 40여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 기술교육은 물론 일반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부발전(주), 윤리경영 추진에 ‘옴부즈맨제’ 도입

- 제1차 회의가 지난 11월 2일과 9일에 부산복합화력 및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개최

- 지역주민의 의견, 불만사항 등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제도·절차 개선건의

사내에 윤리추진위원회를 두고 순회 협력업체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강력한 윤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은 11월부터 윤리경영의 한차원 높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새로운 제도로써 ‘윤리경영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였다.

‘南電 윤리경영 옴부즈맨’은 학계, 지자체, 시민환경단체(NGO), 협력회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5명의 지역인사로 구성되며 임기는 1년으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남부발전은 새로운 제도를 하동화력과 부산복합화력발전소의 2개 사업소에서 우선 시행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옴부즈맨은 회사와 관련된 지역주민의 의견, 불만사항 등을 수렴·전달하고 불합리한 제도·절차의 개선건의 및 회사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 또는 정기회의(반기 1회)를 통해 제시하고, 회사는 이들의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회의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윤리경영



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공영하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南電 윤리경영 옴부즈맨’ 위촉행사와 제1차 회의가 지난 11월 2일과 9일에 부산복합화력 및 하동화력발전소에서 각각 개최되었으며, 회의에서 회사의 풍력발전 개발현황, 발전소 지역주민 지원정책 등 회사의 경영현황과 환경정책 등에 많은 토의와 함께 발전소가 지역사회와 함께 Win-Win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발전회사 최초로 윤리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등으로 이미 윤리경영의 지속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남부발전은 이번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통하여 회사경영에 대하여 외부의견을 수용하고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반을 더욱 다지게 되었다.

효성중공업PG, 국제종합전기전에서 우수성 홍보

효성중공업PG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에 참가하여 효성 중전기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2점절 800kV GIS모형과 각종 변압기, 용접기, HISAS, 전동기, 풍력 발전 시스템, 펌프 등을 소개함으로써 전시관을 찾은 국내외 수많은 고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효성의 제품 수준이 곧 국내기술 수준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중국 현지공장에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변압기를 선보임으로써 중국 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을 알려 해외바이어들에게 주목받았다.

전시회 기간 동안 거행된 수출유공자 포상에서는 전력PU 차단기설계팀 옥태호 부장이 산업자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옥 부장은 중국에서 최초로 발주한 800kV GIS 사업을 수주하여 중국 차단기 시장에 진출하였고, 향후 10년간 5억불 규모의 800kV GIS 시장에 대한 경쟁 우위 확보 및 이하 등급의 차단기 시장 진출 확대 등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한국종합에너지(주), 공모회사채 1,200억원 성공적 발행

한국종합에너지는 지난 10월 21일 공모 회사채 1,200억원을 성공적으로 발행하였다. 이는 2000년 합작 이후 꾸준히 추진해 온 채무구조조정 (Debt Restructuring)의 최종 마무리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 이번에 발행된 회사채는 3년~5년 만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달금리는 최근 동일 신용등급업체가 발행한 회사채들 중에서 최저수준일뿐만 아니라 동시에 만기 재조정을 통하여 장기안정성을 확보하였다. 회사채발행 자금으로 기존의 상대적 고금리 차입금을 상환함으로써 향후 5년간 약 14억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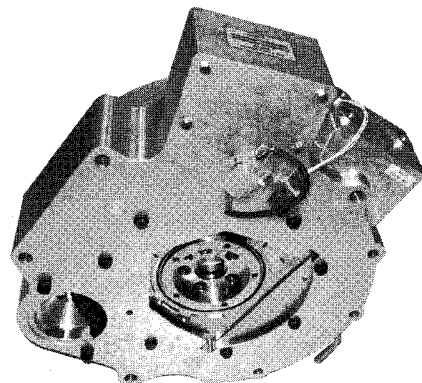
현대중공업(주)

2004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SIEF 2004) 참가

현대중공업(주)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11월 2일(화) ~ 11월 5일(금)(4일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서울국제종합전기기기전에 이번 전시회 참가 업체 중 최대 규모(24Booth)로 참가한다.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는 선진기술 도입 및 기술인력의 양성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하여 사업초기부터 해외시장 개척에 심혈을 기울임으로써 1993년에 이미 전제품에 대해 ISO 9001 품질 인증을 획득하여 제품의 품질 우수성을 입증하였고, 1997년에는 ISO 14001 환경경영체제 인증까지 획득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공인 받게 되었다. 아울러 설계와 생산, 연구개발 등 글로벌 네트워크체제를 갖춘 종합 전기기기 공급 업체로서 생활전력에서 최첨단 산업현장에 이르기까지 발전 및 송변전과 배전설비를 비롯한 전기전자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저압차단기와 인버터, 전동기, 배전설비 등을 전시하게 되는데 특히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진공차단기(Vacuum Circuit Breaker)와 인버터, 콤팩트형 고성능 모터제어반, 높은 안정성 및 친환경성과 설치공간을 최소화한 가스절연폐쇄배전반(C-GIS), 최근 부각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용 전동기 등 최첨단 신제품은 전시장을 찾은 방문객의 발길을 붙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12kW 모터-4륜구동전륜모터